

보도자료

- 제공일 : 2004. 11. 17.
- 제공자 : 농어업특위 사무국
 - 정책 1팀장 : 박 병 흥
 - 담 당 : 이 우 근
- 전화
 - 농어업특위 사무국 : (02)3466-3222~5
 - 농경연 홍보팀 : (02)3299-4226

이 자료는 2004년 11월 18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특위·농경연, 11월 17일 쌀협상과 쌀소득대책 대토론회 개최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11월 17일(수) 14시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정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 소비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초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온 쌀협상의 내용과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이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이 “쌀 관세화의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을,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이 “쌀소득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사회로, 김충실 WTO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용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임정빈 경상대 교수,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가나다 순) 등 10인의 전문가 지정토론을 한 후,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서 윤장배 국장은 “ 다양한 쟁점들을 단일 합의안 형태로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주요국들은 10년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주요국들은 10년차 TRQ 수준에 대하여 410천톤(8%)과 455천톤(8.9%)으로 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대비 최대 7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05년 관세화시 2014년 쌀 예상수입량은 평균적으로 6.3~6.4% 수준이 되고, 관세화시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줄일 경우 MMA 허용한도는 2014년에 7.1~7.5% 수준이 되고,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MMA 허용한도는 8%를 다소 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만 국장은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쌀소득보전방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특위 장원석 위원장은 “의무수입량이 일정수준 이내일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고,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전제하면서 “단순한 정서나 감성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냉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2. 발제자료 요약

<붙임 1>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1. 행사개요

- 일시 : 2004. 11. 17(수) 14:00 ~ 18:00
- 장소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강동구 성내동 451)
- 주최 :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후원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 참석 :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

2. 주제발표 및 토론

- 좌장 :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4:20~14:35(15분) : 제1주제 발표(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14:35~14:50(15분) : 제2주제 발표(서진교 농경연 연구위원)
 - 쌀 관세화의 파급영향과 선택기준
 - 14:50~15:05(15분) : 제3주제 발표(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 쌀농가 소득안정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
 - 15:20~16:50(90분) : 지정토론
 - 지정토론자 : 김충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임정빈 경상대 교수,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가나다 순)
 - 16:50~18:00(70분) : 방청객 질의·응답

1. 쌀관세화 관련 협상 동향(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① 협상 추진 개요

-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

	관세화 유예	관세화
장점	- 합의한 TRQ 물량만 수입하면 되므로 수입물량이 예측 가능하고, 수급관리 등 정책의 안정성 제고	- 유예연장의 대가로 제공하는 TRQ 증량 등 추가적 양보 불필요 - DDA 협상 이행개시 전까지는 현 수준의 TRQ 유지 가능 - 단계적 관세인하가 가능하여 관세감축 효과가 시간을 두고 분산
단점	- 유예기간 중에도 관세감축은 지속(Shadow Reduction)되며 관세화되는 시점에 그간 누적된 관세감축 효과가 일시에 나타남 - 유예기간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해도 전환 당시의 TRQ는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부담(최초 2~3년간 불필요한 의무 부담)	- 국제가격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예측하지 않은 수입 급증 우려 - DDA 협상에서 결정될 세부원칙(Modality)에 따른 관세감축률과 TRQ 증량폭의 불확실성

- 미·중은 6차, 태국 5차, 호주 등 6개국은 2차 협상을 추진

② 쟁점별 협상경과 및 현황

□ 유예기간 및 중간점검

- 주요 협상국들은 원칙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성격의 중간점검을 둔다는 조건하에 “10년 연장“에 동의
 -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집중 협상 추진중

□ TRQ 중량수준

- 주요국들은 10년차 TRQ 수준에 대하여 410천톤(8%)과 455천톤(8.9%)으로 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상황
- 이 문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입장을 유사한 수준으로 접근시키기 위한 협상 추진중

□ 소비자 시판

- 소비자 시판 비중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 대비 최대 7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자국산 쌀의 신규 시장진출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
 - 소비자 시판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 진행중

□ TRQ 배분 등 관리방안

- 주요 수출국들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입장에서 TRQ 배분에 있어 자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요구
-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입찰시기 조정, 입찰 규격 및 입찰절차 등의 개선을 요구

□ 기타

- 대부분의 국가는 쌀 협상과 양자 현안을 분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축산물 검역 문제, 관세 인하 등 관심사항 해결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

□ 향후 협상계획

- 주요국과 아직 남아있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상 추진
- 주요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타 국가들에게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 설득
- 국내적으로는 최종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1월말경 공청회 등을 통해 관세화 유예 여부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
- 12월 초 협상결과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

2. 쌀 관세화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서진교 농경연 연구위원)

① 쌀 협상에 대한 기본 인식

-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수입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유예의 조건으로 제시된 MMA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동등성 판단
-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수입량과 국내쌀 가격전망은 ①쌀의 기준 관세화 상당치(TE)크기, ②기준 과세의 감축폭 및 TRQ 증량수준, ③SSG 발동여부, ④쌀의 국제가격, ⑤환율 등에 따라 결정

② 관세화 시나리오별 예상 쌀 수입량

□ 관세화 시나리오의 설정

- 쌀의 기준 관세상당치(TE) : UR 농업협정문에 따라 추산
- 쌀의 관세 감축폭 : 선진국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은 5년간 최대 30%, 개도국 특별품목 관세감축은 10년간 최대 20%
- 국제 쌀가격(중국산 기준) : '14년 \$335/톤을 중심으로 \$285~\$425/톤 사이에서 정규분포
- 환율 : '14년까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환율 1,173원/\$을 기준으로 1,050원/\$ 하락하는 경우를 고려
- DDA 이행 개시시기 : 2007년, 2008년이 될 가능성도 고려
- SSG 적용여부 : 계속 존치될 가능성이 높으나, 폐지도 고려

□ 시나리오별 예상 쌀 수입량

- DDA 이행개시가 2007년, 2014년 국제 쌀 가격이 \$355/톤, 대미 환율이 1,100원/달러인 경우, 관세화시 2014년의 예상 쌀 수입량은 MMA 4.9~7.5% 상당량이 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이 되면 예상 수입량은 MMA 4.9%, 선진국이 되면 MMA 7.1~7.5% 상당량이 될 전망
- 2014년 국제가격과 환율 수준에 따라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음
 - 개도국이 되면 예상 수입량은 MMA 4.9~8.3%, 선진국의 경우는 MMA 7.1~15.5% 상당량으로 증가할 수 있음

3 관세화시 예상 수입량 확률분포

□ 2009년의 수입량 확률분포

- 관세화시 예상되는 2009년 쌀 수입량은 평균적으로 MMA 약 5.1%(26만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MA 5.9%를 넘어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의 수입량 확률분포

- 관세화시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은 평균적으로 MMA 약 6.3~6.4%이며, MMA 7.1~7.4% 초과하여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관세화 선택의 기준

	<1안>	<2안>	<3안>
	평균 수입량에 기초할 경우	수입급증의 위험성을 5% 이하로 낮출 경우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시
동등성 수준	MMA 6.3~6.4%	MMA 7.1~7.5%	MMA 8%+
비용	동등성 수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우려 (50%의 가능성)	매년 0.8~1.1%의 추가 수입	매년 0.7~1.0%의 추가 수입

3. 쌀소득보전대책과 양정제도 개편방안(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① 여건 및 전망

-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산업의 충격 불가피
-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도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는 한계
 - 추곡수매제는 WTO 보조금 감축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시 더욱 위축될 전망

② 양정체제 개편방향

- 과거에는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
- 앞으로 쌀농가소득보전 방안 마련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바탕위에
 - ①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② 수급조절은 민간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하면서
 - ③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 확보

③ 쌀농가소득보전 방안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일정 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목표가격 : 170,070원/80kg, 3년간 고정하고 3년단위로 조정
 - * 목표가격 = '01~'03년 평균 산지쌀값 (157,969원/80kg) + '01~'03 추곡수매 직접소득효과(3,021원/80kg) + '03년 논농업직불 소득효과(9,080원/80kg)
 - 보전수준 : 외국사례, DDA 협상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80%)

-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
 - '98. 1. 1부터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불방법 : 고정형직불(허용보조) + 변동형직불(감축대상보조)
 - 고정형직불 :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60만원으로 농업진흥 지역과 비진흥지역 차등 지급
 - 변동형직불 :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형직불을 차감한 만큼 지급
- '03년 쌀값대비 5% 하락하더라도 당년 산지쌀값과 직접지불금을 합할 경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의 98% 수준을 수취 가능
- 농가소득보전방안이 마련되면 현행 추곡수매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앞으로 쌀시장개방폭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곡 수매제의 개편은 불가피
 - 변동직불(WTO 감축보조) 도입을 위해 수매제 개편 불가피
 - 목표가격에서 이미 수매제의 직접소득효과를 반영
 - DDA이후 추가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전망

[4] 양정제도 개편

- 공공비축제 근거규정 신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11.9, 국회제출)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
-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쌀농가 육성
-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